

유란시아서

<< [제 182 편](#) | [부분](#) | [내용](#) | [제 184 편](#) >>

제 183 편

예수가 배반당하고 체포되다

183:0.1 (1971.1) 마침내 **베드로** · **야고보** · **요한**을 깨운 뒤에, **예수**는 그들이 내일의 직무에 대비하여 자기 텐트로 돌아가서 잠을 청하라고 제안했다. 그러나 이때가 되자 세 사도는 정신이 초롱초롱해졌고, 잠깐 눈을 붙였기 때문에 기분이 새로워졌다. 게다가 그들은 흥분한 두 사자가 그 장면에 도착하자 자극을 받고 잠이 깨었다. 이 사자들은 **다윗 세베대**가 어디 있는가 찾았고, **베드로**가 그들에게 **다윗**이 망보는 곳을 가르쳐 주자, 재빨리 그를 찾아 갔다.

183:0.2 (1971.2) 비록 사도들 가운데 여덟이 잠에 굶아떨어졌어도, 그들과 나란히 야영한 **그리스인**들은 문제가 일어날까 더 두려워했는데, 너무나 두려워서 위험한 일이 생길 경우에 경종을 울리라고 파수 하나를 세워놓았다. 이 두 사자가 캠프로 서둘러 갔을 때, **그리스인** 파수는 동료들을 모두 깨우기 시작했고, 그들은 텐트에서 완전히 옷을 차려 입고 완전히 무장하여, 줄지어 나왔다. 여덟 사도를 제외하고 캠프 전체가 이제 잠에서 깨어났다. **베드로**는 동료들을 부르고 싶었지만, **예수**는 분명히 그를 막았다. 주는 그들에게 모두 자기

텐트로 돌아가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지만, 그들은 그 제안 따르기를 망설였다.

183:0.3 (1971.3) 추종자들을 해산하지 못했으므로, 주는 그들을 버려두고 **겻세마네** 공원 입구 가까이, **올리브** 기름틀을 향해서 걸어 내려갔다. 비록 세 사도와 **그리스**인들과 캠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짝 따라가기를 주저했어도, **요한 마가**는 올리브 나무들을 거쳐 서둘러 돌아서, 올리브 기름틀 가까이, 작은 오두막에 몰래 숨었다. 체포하는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, 사도들을 방해하지 않고 그를 붙잡도록 **예수**는 캠프에서, 친구들로부터 물러났다. **유다**가 그를 배반하는 광경이 사도들의 적개심을 너무 건드려서 군인들에게 저항하다가 그와 함께 감금될까 저어하여, 주는 체포될 때 사도들이 깨어 있고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이 두려웠다. 함께 붙잡힌다면, 그들도 함께 죽을까 걱정이 되었다.

183:0.4 (1971.4)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 **유대인** 권력자 회의에서 시작된 것을 알았어도, **예수**는 또한 모든 그런 사악한 계획이 **루시퍼**와 **사탄**과 **칼리가스티아**의 충분한 승인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다. 또한 영역의 이 모반자들이 사도들 모두가 그와 함께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하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.

183:0.5 (1971.5) **예수**는 올리브 기름틀 위에 혼자 앉아서, 거기서 배반자가 오기를 기다렸는데, 이때 오직 **요한 마가**와 셀 수 없이 많은 하늘 관찰자의 무리가 그를 보았다.

1. 아버지의 뜻

183:1.1 (1971.6) 육체를 입고 주가 사신 생애가 종결되는 것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과 많은 사건의 의미를 사람들이 오해할 위험이 크다. 무지한 종과 감각이 무딘 군인들에게, **예수**가 잔인한 대우를 받은 것, 그 재판의 불공평한 진행, 종교 지도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무딘 태도를, 이 모든 고통과 치욕에 참을성 있게 복종하면서 **예수가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참으로 실행하고 있었다**는 사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. 정말로, 진실로,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, **아들이 필사 체험의 잔을 끝까지 들이켜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**. 그러나 하늘에 계신 **아버지**는, 아주 모질게 주를 고문(拷問)하고, 저항하지 않는 몸매 아주 끔찍하게 모욕을 연달아 퍼부은 인간, 개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인간들의 미개한 행위를 부추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. **예수**가 필사 인생의 마지막 몇 시간에 견디도록 강요되었던 비인간적이고 충격적인 이러한 체험은 어떤 의미에서도, **아버지**의 신성한 뜻과 상관이 없었다. 지친 사도들이 몸이 피곤해서 잠에 빠진 동안에, 공원(公園)에서 그가 세 차례 드린 기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, 사람이 **하나님께** 마침내 굴복했을 때 그의 인간 성품은 승리에 넘쳐 **아버지**의 뜻을 실행하기를 서약했다.

183:1.2 (1972.1) 하늘에 계신 **아버지**는 모든 필사자가 땅에서 육체를 입고 일생을 마쳐야 하는 것과 똑같이, 수여 **아들이** 땅에서 일생을 자연스럽게 마치기를 바라셨다. 보통 남자와 여자는 땅에서 마지막 몇 시간, 그리고 뒤이어 죽는 사건을 특별한 섭리로 쉽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. 따라서, **예수**는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육체를 입은 목숨을 버리기로 했다. 끔찍할 정도로 확실히, 믿을 수 없는 굴욕과 치욕스러운 죽음을 향하여 휩쓸어간 비인간적 사건들이 사악하게 겹친 잔인한 손아귀에서, 그는 집요하게 자신을 구출하지 않으려 했다. 이 놀라운 증오의 표시, 그리고 전례

없이 잔인한 표현은 모조리, 나쁜 사람과 사악한 필사자들이 저지른 일이었다. 하늘에 계신 **하나님**은 그렇게 뜻하지 않았고, **예수**의 대적들이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았다. 하지만 그들은 생각이 모자라는 악한 필사자들이 수여 **아들**을 이렇게 물리칠 것을 보장하려고 많이 일했다. 죄의 아버지조차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장면의 끔찍한 공포를 피하여 얼굴을 돌렸다.

2. 유다가 도시에서

183:2.1 (1972.2) 마지막 만찬을 들다가 그렇게 갑자기 식탁을 떠난 뒤에, **유다**는 바로 사촌 집으로 갔고, 다음에 두 사람은 성전 경비원의 지휘관에게 곧장 갔다. **유다**는 그 지휘관에게 경비원들을 소집하라 요청하고, 자기가 이들을 **예수**에게로 이끌 준비가 되었음을 그에게 알렸다. 기대된 것보다 조금 일찍 그 장면에 **유다**가 나타났기 때문에, **마가**의 집을 향하여 떠나는 데 얼마큼 지체되었고, **유다**는 그 집에서 아직도 사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**예수**를 찾기를 기대했다. 주와 열한 사도는 배반자와 경비원들이 도착하기까지 15분도 더 전에 **엘리아 마가**의 집을 떠났다. 체포하는 사람들이 **마가**의 집에 이르렀을 때가 되어, **예수**와 열한 사람은 도시의 담 바깥으로 한창 나가서, **올리브** 산 캠프로 가는 도중이었다.

183:2.2 (1972.3) **마가**의 주택에서, 열한 사람의 일행 속에, **예수**를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여 **유다**는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, 그 중에서 오직 두 사람이 대항하기 위하여 무기를 지녔다. 오후에 그들이 캠프를 떠났을 때 그는 어쩌다가 **시몬 베드로**와 열심당원 **시몬**만 칼을 차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. **유다**는 도시가 조용할 때, 그리고 저항할 기회가 거의

없을 때 **예수**를 붙잡기를 희망했다. 그 배반자는 그들이 캠프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, 60명이 넘는 충실한 제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웠고, 그는 또한 열심당원 **시몬**이 수중에 무기를 수북하게 쌓아 놓은 것을 알았다. 충성스러운 열한 사도가 그를 얼마나 미워할까 깊이 생각하자, **유다**는 갈수록 더 조바심이 났고, 그들이 모두 그를 죽이려고 할까 두려웠다. 그는 불충했을 뿐 아니라 속으로 정말 겁쟁이었다.

183:2.3 (1973.1) 2층 방에서 그들이 **예수**를 찾아내지 못했을 때, **유다**는 경비대의 지휘관에게 성전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다. 그 배반자와 한 약속이 그날 자정까지 **예수**를 붙잡아 오라고 요구한 것을 알고서, 이때가 되어 권력자들은 **예수**를 받아들이는 준비로 대사제(大司祭)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다. **유다**는 같이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**마가**의 집에서 **예수**를 놓쳤다, 그를 체포하러 **겻세마네**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설명했다. 다음에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60명이 넘게 그와 함께 야영하고 있고, 모두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고 배반자는 이어서 설명했다. **유대인** 권력자들은 **예수**가 언제나 무저항을 가르쳤다고 **유다**에게 주의를 주었지만, **예수**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가르침에 복종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**유다**는 대답했다. 그는 정말로 자기 몸을 걱정했고, 따라서 무장한 군인 40명의 무리를 대담하게 요구했다. **유대** 당국은 그렇게 무장한 군대가 관할 밑에 없었으니까, 대번에 **안토니아** 요새로 가서 **로마인** 사령관에게 이 경비대를 달라고 요구했다. 그러나 그들이 **예수**를 체포할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, 사령관은 재빨리 그 요청을 거절했고 그들을 그의 상관에게 보냈다. 무장한 **로마** 경비원들을 이용할 허락을 얻으려고 마침내 그들이 할 수 없이 바로 **빌라도**에게 갔을 때까지, 이렇게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가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. **빌라도**의 집에 다다랐을

때는 밤이 늦었고, 그는 이미 아내와 함께 침실로 물러가 있었다. 그는 그 계획과 전혀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, 아내가 그 요청을 허락하지 말라고 요구했기 때문에, 더군다나 꺼려했다. 그러나 **유대인 산헤드린**의 담당 관리가 자리에 있고 그가 친히 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,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가 나중에 시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, 총독은 그 간청을 허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.

183:2.4 (1973.2) 따라서, **가롯 유다**가 11시 반쯤 되어 성전을 떠났을 때, 그에게는 60명이 넘는 사람 — 성전 경비원과 **로마** 군인들, 그리고 주사제 및 권력자들의 호기심 있는 하인들 — 이 따라붙었다.

3. 주가 붙잡히다

183:3.1 (1973.3) 횃불과 등불을 들고 이 무장한 군인 및 경비원 일행(一行)이 동산에 접근했을 때, 누가 **예수**인가 재빨리 확인할 준비가 되고, 그래서 **예수**의 동료들이 그를 방어하려고 집결할 수 있기 전에 체포하는 자들이 쉽사리 **예수**를 잡을 수 있게 하려고, **유다**는 그 일당 앞에 훨씬 바깥으로 걸어나왔다. **유다**가 주의 적들보다 앞서 나와 있기를 택한 데에는 아직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: 군인들보다 앞서 그가 그 장면에 도착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, 그래서 **예수** 주위에 모인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**유다**를 그의 뒤꿈치를 바짝 쫓아오는 무장한 경비원들과 직접 관련 짓지 않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. **유다**는 체포하는 자들이 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려고 서둘러 온 것처럼 꾸미려는 생각까지 했지만, **예수**가 배반자에게 그런 생각을 방해하는

인사를 함으로 이 계획은 망쳤다. 비록 **유다**에게 친절하게 말했지만, 주는 **유다**를 배반자로서 맞이했다.

183:3.2 (1973.4) 30명 남짓한 동료 야영자들과 함께 있던

베드로 · 야고보 · 요한이, 횃불을 들고 무장한 무리가 산꼭대기를 휘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, 이 군인들이 **예수**를 붙잡으러 오고 있음을 알았고, 모두 올리브 기름틀 가까이 달려갔는데, 거기에는 주가 달빛이 비치는 가운데 혼자 앉아 있었다. 군인들의 일행이 한쪽으로 다가오자, 세 사도와 그 동료들은 반대쪽에서 다가왔다. **유다**가 앞으로 걸어나와 주에게 인사하자, 주를 사이에 두고, 거기에 두 무리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, **유다**는 그의 이마에 배반의 입맞춤을 하려고 준비하였다.

183:3.3 (1974.1) 경비원들을 **겻세마네**로 이끈 뒤에 그 배반자는 단지 군인들에게 **예수**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, 아니면 기껏해야 입맞춤으로 그에게 인사한다는 약속을 이행하고, 다음에 그 장면에서 재빨리 물러날 수 있을까 바라고 있었다. **유다**는 사도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고 감히 그가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을 배반한 것을 징계하느라고 자신을 집중하여 공격할까 크게 두려워했다. 그러나 주가 그를 배반자로 인사했을 때, 그는 정신이 너무 혼란하여 달아나려고 애쓰지 않았다.

183:3.4 (1974.2) 배반자가 다가올 수 있기 전에, **예수**가 한 옆으로 걸어가서, 왼쪽 맨 앞에 있는 군인, **로마인**들의 지휘관을 향하여, “너희가 누구를 찾느냐?”하고 말했으니, 실제로 그를 배반하는 일로부터 **유다**를 구하려고 **예수**는 마지막으로 한 번 노력하였다. 그 지휘관은 대답했다, “**나사렛 예수**라.” 그러자 **예수**는 그 장교 앞으로 즉시 걸어 나가서, 이 모든 세상을 지은 **하나님**의 차분한 위엄을 갖추고 거기 서서 말했다, “내가 그로다.” 이 무장한 무리 중에서 여러 사람이 **예수**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었고, 더러는 그의 대단한

행적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었다. 그들이 그가 이렇게 대담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 말을 들었을 때, 행렬 앞 몇 줄에 선 자들이 갑자기 뒤로 자빠졌다. 그가 차분하고 품위 있게 신분 밝히는 것을 듣고서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. 따라서 **유다**는 배반하려던 계획을 밀고 나갈 필요가 없었다. 주는 대담하게 적들에게 자신을 드러냈고, 그들은 **유다**의 도움 없이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. 그러나 배반자는 이 무장한 무리와 함께 그가 거기 있는 것을 설명하려고 무슨 일인가 해야 했다. 게다가 **예수**를 그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수복히 받을 것이라 믿었던 큰 상(賞)과 명예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, **유대인** 권력자들과 맺은, 주를 배신하는 거래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.

183:3.5 (1974.3) **예수**의 모습을 보고 그의 특별한 목소리를 듣고, 처음에 비틀거렸다가 경비원들이 다시 모이고, 사도와 제자들이 더 가까이 오자, **유다**는 **예수**에게 걸어나가서,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말했다, “만세 — 주여, 선생이여.” 이렇게 **유다**가 주를 품에 안자, **예수**는 말했다. “친구여, 이렇게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느냐! 너는 입맞춤으로 **사람의 아들**을 배반까지 하려느냐?”

183:3.6 (1974.4) 사도와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글자 그대로 소스라치게 놀랐다. 한 순간 아무도 꿈쩍하지 않았다. 그러자 **예수**는 **유다**의 배반의 포옹을 풀고, 경비원과 군인들에게 걸어 나가서 다시 물었다: “너희가 누구를 찾느냐?” 다시 지휘관은 대답했다, “**나사렛 예수**라.” **예수**는 다시 대답했다: “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일렀노라.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거든, 이 다른 사람들이 가도록 버려 두라.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노라.”

183:3.7 (1974.5) **예수**는 경비원들과 함께 **예루살렘**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고, 군인들의 지휘관은 세 사도와 그 동료들이 평안히 제 갈 길을

가도록 아주 기꺼이 버려 두려웠다. 그러나 그들이 떠날 수 있기 전에, **예수**가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며 서 있는 동안, 대사제의 **시리아인** 경호원 **말고**라는 사람이 **예수** 앞에 걸어 나와 그의 손을 뒤로 묶으려고 준비했다. 하지만 **로마인** 지휘관은 **예수**를 이렇게 묶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. 주가 이러한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, **베드로**와 동료들은 이제 더 자제할 수 없었다. **베드로**는 긴 칼을 뽑아 들었고, 다른 사람들과 함께 **말고**를 치려고 앞으로 후딱 나섰다. 그러나 미처 군인들이 대사제의 하인을 방어하려고 나올 수 있기 전에, **예수**는 손을 들어 **베드로**를 막으며 엄하게 말했다: “**베드로**야, 네 칼을 거두라.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할지니라.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**아버지**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? 게다가, 이 몇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는 열두 군단(軍團)이 넘는 천사와 그 동료들을 지금도 내가 지휘할 수 있음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?”

183:3.8 (1975.1) **예수**가 추종자들의 이러한 육체적 저항의 표시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만두게 했어도, 이것은 경비대 지휘관의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넉넉했다. 그는 이제 군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**예수**를 짊어붙고 재빨리 그를 묶었다. 그들이 그의 손을 굽은 노끈으로 묶는 동안에 **예수**는 그들에게 말했다: “어찌하여 너희가 강도나 붙잡듯 칼과 막대기로 나를 대적하여 오느냐?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고, 대중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거늘, 너희는 나를 잡으려고 조금도 애쓰지 아니하였도다.”

183:3.9 (1975.2) **예수**가 묶이고 나서, 지휘관은 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구조하려고 애쓸까 두려워서, 그들을 붙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다. 그러나 그 군인들은 그렇게 빠르지 못했다. 그들을 체포하라는 지휘관의 명령을 흘려듣고서 **예수**의 추종자들이 황급히 골짜기로 달아났기 때문이다. 여태까지 **요한 마가**는 근처의 오두막에 숨어

있었다. 경비원들이 **예수**와 함께 **예루살렘**으로 떠나자, **요한 마가는** 달아나는 사도와 제자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오두막에서 살그머니 나오려 했다. 그러나 막 그가 빠져나올 때, 달아나는 제자들을 쫓다가 돌아오는 마지막 군인들 중 하나가 가까이 지나가고 있었고, 리넨 겹옷을 걸친 이 젊은이를 보고 쫓아가서, 거의 그를 따라잡았다. 사실, 그 군인은 겹옷을 붙잡기에 넉넉히 **요한**에게 가까이 갔지만, 그 젊은이는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달아났고, 군인은 헛되이 겹옷만 손에 쥐었다. **요한 마가는** 쏜살같이 위쪽 산길에, **다윗 세베대**에게 갔다.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**다윗**에게 이야기하고 나서, 그들 둘은 잠자는 사도들의 텐트로 서둘러 돌아가서 주가 배반당하고 체포된 것을 여덟 명 모두에게 알려주었다.

183:3.10 (1975.3) 여덟 사도가 깨어날 무렵에, 위에 있는 골짜기로 달아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었다. 어찌해야 할까 의논하려고 그들은 모두 올리브 기름틀 가까이서 함께 모였다. 그동안에, 올리브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던 **시몬 베드로**와 **요한 세베대**는 군인과 경비원과 하인들의 패거리를 뒤쫓아 이미 가버렸고, 이들은 이제 가망 없는 죄인을 이끌 듯 **예루살렘**으로 **예수**를 이끌고 있었다. **요한**은 그 패거리 뒤에 바짝 쫓아갔지만 **베드로**는 멀찌감치 따라갔다. 군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뒤에, **요한 마가는 시몬 베드로**와 **요한 세베대**의 텐트에서 찾아낸 겹옷 하나를 주워 입었다. 그는 경비원들이 **예수**를 **안나스**, 은퇴한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간다고 추측했다. 그래서 그는 올리브 농원(農園)을 통하여 길을 둘러가서, 그 패거리보다 앞서 갔고, 대사제 저택의 대문 입구 가까이 숨었다.

4. 올리브 기름집에서 있는 토론

183:4.1 (1975.4) **야고보 세베대는 시몬 베드로와 자기 아우 요한과**

갈라졌고, 그래서 그는 이제 올리브 기름틀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도와 동료 야영자들과 한데 모여서, 주가 붙잡힌 상황에 비추어서 어찌해야 할까 의논했다.

183:4.2 (1975.5) **안드레**는 동료 사도들을 집단으로 관리하는 모든

책임에서 전에 해방되었다. 따라서 그들의 일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, 그는 말이 없었다. 잠시 비공식 논의가 있는 뒤에, 열심당원 **시몬**은 올리브 기름집의 돌담 위에 서서, 주와 하늘나라 운동에 충성해야 한다고 뜨겁게 탄원하면서, 동료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 패거리 뒤를 얼른 쫓아가서 **예수**를 구출하라고 훈계했다. **나다니엘**의 충고가 아니었더라면, 그 일행의 대다수는 공격적인 그의 지휘를 따를 생각이 있었다. **시몬**이 말을 마친 순간에 **나다니엘**은 일어서서, 무저항에 관하여 **예수**가 자주 되풀이하던 가르침에 주의를 불러일으켰다. 그는 더 나아가서, 좋은 소식, 곧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으로 떠나가야 할 때를 위하여 그들이 목숨을 보존해야 한다고 **예수**가 바로 그날 밤에 지시했음을 상기시켰다. **야고보 세베대**가 **나다니엘**의 이 주장을 격려했고, **야고보**는 이제 어떻게 **베드로**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가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칼을 뽑는가, **시몬 베드로**와 동료 칼잡이들에게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**예수**가 명했다고 이야기했다. **마태**와 **빌립**도 또한 연설했지만, **나사로**에게 죽음을 자초하지 말라고 **예수**가 조언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**토마스**가 주의를 불러일으킬 때까지, 이 논의에서 아무런 뚜렷한 방도가 생기지 않았다. **토마스**는 주가 친구들이 그를 방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, 그리고 적대하는 인간들을 좌절시키려고 신의 능력을 계속 삼가 쓰지 않았으니까, 주를 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. **토마스**는 그들에게 **다윗 세베대**가

집단을 위하여 정보 교환소와 사자 본부를 유지하려고 캠프에 남아 있을 것을 알고, 각자 자신을 위하여 흩어지라고 설득했다. 그날 새벽 2시 반이 되자, 사람들이 캠프를 버리고 떠났고 오직 **다윗**이 사자 서넛과 함께 가까이 남아 있었으며, 다른 사람들은 **예수**가 어디로 끌려갔는가,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파송되었다.

183:4.3 (1976.1) **나다니엘 · 마태 · 빌립** 그리고 쌍둥이, 이 다섯 사도는 **벳바게**와 **베다니**에서 숨었다. **토마스 · 안드레 · 야고보**, 그리고 열심당원 **시몬**은 도시 안에 숨어 있었다. **시몬 베드로**와 **요한 세베대**는 **안나스**의 집으로 따라갔다.

183:4.4 (1976.2) 동이 튼 뒤에 조금 있다가, **시몬 베드로**는 **겻세마네** 캠프로 헤매면서 돌아갔고, 깊은 절망에 빠져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. **다윗**은 한 사자에게 책임을 지워서 그를 형 **안드레**와 함께 지내라고 보냈는데, **안드레**는 **예루살렘**에서 **니고데모**의 집에 있었다.

183:4.5 (1976.3) 십자가 처형이 끝날 때까지, **요한 세베대**는 **예수**가 지시한 대로 남아 있었고, 언제나 가까이 준비되어 있었다. **다윗**의 사자들에게 시간마다 정보를 준 사람은 **요한**이었고, 이 소식을 사자들은 동산 캠프에 있는 **다윗**에게 전달했으며, 다음에 이것은 숨어 있는 사자들에게, 또 **예수**의 가족에게 전해졌다.

183:4.6 (1976.4) 분명히, 목자가 얻어맞고 양들이 흩어진다! 바로 이 상황을 **예수**가 그들에게 미리 경고했다는 것을 모두가 어렴풋이 깨닫지만, 그들은 주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너무나 심하게 충격을 받아서 정상으로 머리를 쓸 수 없다.

183:4.7 (1976.5) 날이 밝은 뒤에 조금 있다가, **베드로**가 형과 함께 있으라고 파송된 바로 뒤에, 육체로 **예수**의 아우인 **유다**가 숨이 차서, **예수**의 나머지 가족보다 먼저 캠프에 도착했지만, 주가 이미

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. 그는 이 정보를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에게 전하려고 **예리고** 길을 서둘러서 도로 내려갔다. **다윗 세베대**는 **유다**를 통해서, **예수**의 가족에게 **베다니**에 있는 **마르다**와 **마리아**의 집에서 모이라고, 거기서 그의 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가져올 소식을 기다리라는 말을 보냈다.

183:4.8 (1976.6) 사도와 주요 제자들과 땅에 있는 **예수**의 가족에 관하여 말하면, 이것이 목요일 밤 후반의 상황이었다. 이 집단과 개인들은 모두 사자(使者)의 봉사로서 서로 연결이 유지되었고, **다윗 세베대**가 이 봉사를 **갯세마네** 캠프에 있는 그의 본부에서 계속 운영했다.

5. 대사제의 저택으로 가는 길

183:5.1 (1977.1) 동산에서 **예수**와 함께 길을 떠나기 전에, 성전 경비대의 **유대인** 지휘관과 군인 집단의 **로마인** 지휘관 사이에, **예수**를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가 다툼이 일어났다. 성전 경비대의 지휘관은 **예수**를 대사제 대리(代理) **가야바**의 집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. **로마** 군인들의 지휘관은 **예수**를 전직(前職) 대사제이자 **가야바**의 장인 **안나스**의 저택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지시했다. 그가 이렇게 한 것은 **유대** 교회 율법의 집행에 상관되는 모든 문제에서 **로마인**들이 **안나스**와 직접 상대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다. 사람들은 **로마인** 지휘관의 명령을 따랐고, 그들은 예비 심문을 받도록 **예수**를 **안나스**의 집으로 데려갔다.

183:5.2 (1977.2) **유다**는 지휘관들 가까이, 따라서 행진하면서 주고받는 말을 모두 들었지만, 그 논쟁에 전혀 끼지 않았는데, **유대인**

지휘관이나 **로마인** 장교가 배반자에게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— 그렇게 경멸하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.

183:5.3 (1977.3) 이 무렵에 **요한 세베대**는, 반드시 가까이 남아 있으라고 주가 지시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, 두 지휘관 사이에, 따라서 행진하는 **예수** 가까이 서둘러 갔다. 성전 경비대의 사령관은, **요한**이 따라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, 조수(助手)에게 말했다: “이 사람을 잡아서 묶어라. 이 친구의 추종자 중에 하나이라.” 그러나 **로마인** 지휘관이 이 말을 들었을 때, 두리번거리다가 **요한**을 보고서, 그 사도가 자기 옆에 와야 한다고, 아무도 그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렸다. 다음에 **로마인** 지휘관은 **유대인** 지휘관에게 말했다: “이 사람은 배반자도 겁쟁이도 아니라. 나는 동산에서 그를 보았는데, 그는 우리에게 저항하려고 칼을 빼지 않았느니라. 그는 자기의 주와 함께 있으려고 앞으로 나설 만큼 용기를 가졌고, 아무도 그에게 손대지 말지니라. **로마**의 율법은 어떤 죄수도, 재판석 앞에 함께 설 친구를 적어도 하나 가져도 좋다고 허락하느니라. 이 사람이 그의 주, 그 죄수 옆에 서는 것을 막지 말지니라.” 이 말을 들었을 때, **유다**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, 행진하는 사람들의 뒤로 물러갔고, **안나스**의 저택에 혼자 다다랐다.

183:5.4 (1977.4) 이것이 어째서 **요한 세베대**가 이날 밤과 이튿날, 고된 체험을 통하여 끝까지 **예수** 가까이 남아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가 설명한다. **요한**이 **유대** 교회 법정의 처리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라고 지명된 **로마인** 고문 비슷한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, **유대인**들은 **요한**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그를 건드리기를 두려워했다. **안나스** 저택의 대문에서 성전 경비대의 지휘관에게 **예수**를 넘겨주면서, 그 **로마인**이 조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, 특권을 가진 **요한**의 지위는 더욱 안전해졌다: “이 죄수를 따라가서 이 **유대인**들이

빌라도의 허락 없이 그를 죽이지 않도록 처리하라. 저들이 그를 암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, 그의 친구 **갈릴리** 사람이 곁에 서서, 일의 진행을 모두 지켜보도록 처리하라.” 다른 열 사도는 할 수 없이 숨어 있어야 했지만, 이렇게 **요한**은 **예수**가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때까지, 줄곧 **예수**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. **요한**은 **로마**의 보호를 받으며 행동했고, **유대**인들은 주가 돌아가실 때까지 감히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.

183:5.5 (1977.5) **안나스**의 저택으로 가는 동안 내내, **예수**는 입을 열지 않았다. 그가 체포된 때부터 **안나스** 앞에 나타날 때까지, **사람의 아들**은 입을 열지 않았다.